

17

역발상으로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 : 대전서구문화원 건립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제 인간은 의식주 문제를 뛰어 넘는 욕구를 갈망한다. 신체의 안녕을 넘어선 정신의 안녕, 바로 문화 향유의 욕구다.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느끼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의 즐거움보다 크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나라의 문화 공간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나마도 많은 곳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 이외 지역의 사람들은 문화에 더욱 목마를 수밖에 없다. 대전 서구도 마찬가지였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50만여 명. 대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서구는 대전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원은 1995년 개원 이래 15년 넘게 둔산 1동 주민센터의 일부 공간에 좁게 자리잡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들의 문화 공간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서구는 대전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 교육 및 문화수준이 높은 곳이었고, 여가 활용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높았다. 대전 서구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해소해줄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자 대전 지역민들이 주말이면 차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대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대전의 문화 공간을 만들자는 데 구와 주민의 마음이 맞은 것이다. 이러한 합심으로 설립된 곳이 바로 대전 서구 문화원이다.



문제는 예산, 역발상으로 해결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예산이었다. 서구는 거주 인구가 많고 대전의 중심 지역인 만큼 서울 지역의 땅값에 버금가는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예산이 만만치 않았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민들 역시 문화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단독 원사를 꿈꾸고 있지만 건립 비용은 물론이고 부지 매입비 등의 예산 부담으로 건립을 포기하는 실정이었다. 예산 문제로 고민하던 중 서구는 역발상으로 예산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잡았다.

먼저 대전 서구에는 주차장 부지 시설이 많았는데, 주차장 부지는 30%의 문화 근린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문화원에는 어차피 주차장이 있어야 할 텐데, 주차장 부지를 찾아서 30%의 공간에 문화 근린 시설을 지으면 되는 일이었다. 기존의 주차장 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약 25억 원(총 사업비 51억 원)이라는 부지 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낳았다. 대전 서구문화원이 조성된 공영주차장 부지 인근은 공원 지역일뿐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이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만 건립될 경우, 다른 상업 지역에 비해 주차 수요가 적어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유로 그동안 공영주차장 설립이 미뤄져왔던 상황이었다. 이에 서구문화원과 주차장이 함께 건립됨으로써 주차 수요가 늘어나 부지 이용이 제 목적에 맞게 되었으며, 인근의 대형 병원과 정기 주차 협약 등을 추진해 운영 적자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

다음으로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이용했다.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란 열병합발전소 등 발전소 설치 주변지역 5Km 이내의 지역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대전 서구의 경우 택지개발지역인 도안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따라 주변지역 5Km에 해당하여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해왔기에 서구문화원 건립 지원금으로 2억 8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 재원별 현황(서구문화원) |

합 계		국 비 (광특)	지 방 비			비 고
			소계	시비	구비	
합 계	5,106	1,532	3,574	1,787	1,787	
2009	3,412	750	2,662	875	1,787	※ 구비 내역 · 특별교부금 : 300백만원 · 특별교부세 : 300백만원 · 지방채발행 : 1,187백만원
2010	1,694	782	912	912		

※ 국비(30%) /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시비35%, 구비35%)



대전서구문화원건립추진단 회의

융통성있는 예산 확보로 조기 완공

시행착오는 거의 없었다. 사업 시작 전까지 지역민이 포함한 각계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시뮬레이션을 끝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막상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처리를 하는 일은 쉬웠으며, 논의 과정에서 지역민을 참여시키고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지적 사항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오히려 사업은 조기 완공됐다.

한편, 서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11억 8,700만원 가량을 발행했다. 소요 사업비가 51억 6백만 원인데, 구 재정 여건상 2009년 확보 예정액 34억 1,200만 원 중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는 확보했지만 구비 부담액이 미확보되어 정상적인 공정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 조기 완공을 추진하는 융통성을 발휘했고 발행된 지방채는 2년 거치 10년 상황 예정이다. 서구는 지방채가 서구문화원 신축, 경로당 신축 등으로 발행한 73억으로 동종 단체 평균액인 67억 원과 비교해 많았지만 살림 규모가 동종 단체보다 677억 원이 많고, 공유 재산은 동종 단체와 비교해 4,239억 원이 많은 등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채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대전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의 탄생

사업은 건축계 수립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 공유재산계획 승인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건축설계경기 현상 공모 ⇨ 실시 설계 용역 ⇨ 사업 시행(착공 및 준공) ⇨ 개관 순서로 진행됐다.

서구문화원 건립이 추진되자 그동안 이를 염원하던 지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했다. 구는 이를 건축설계 현상 공모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했다.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주민 정서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폭 넓은 디자인 작품을 공모했으며, 당선작품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그 결과 건물 전면에는 문화원, 후면에는 주차장으로 구분되는 수직 공간 분할 배치를 통해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미술 전시관, 도서관, 향토사료 박물관, 공연장, 취미교실, 강의실 및 전층에 총 161대의 주차 시설을 배치해 문화, 교육, 주차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대전서구문화원



휴게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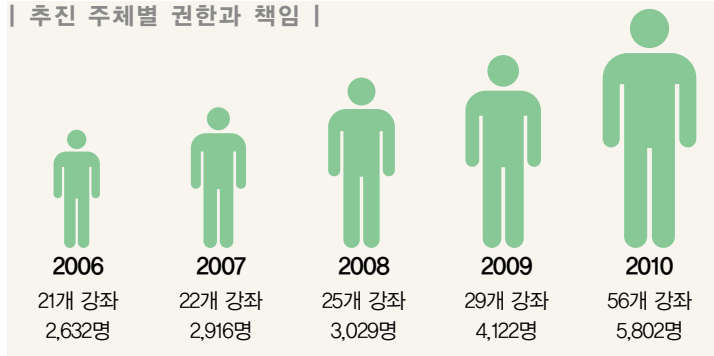
| 추진 주체별 권한과 책임 |

사업추진주체	권한과 책임	비고
사업계획 수립	담당부서	계획서 결재선 책임
설계	설계사무소장	
사업계획 집행	사업감독자	
점검	준공검사 관계자	

| 사업 추진절차 프로세스 |

사업계획수립 (‘08.2.19)	사업추진 (‘08.2.19~‘10.6.5)	점 검 (‘10.6.6~7.15)	환 류 (‘10.7.15~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2008~2010 • 위치 : 탄방동 667번지 • 규모 : 지하1층,지상6층 • 연면적 : 2,731.77㎡ • 예산액 : 5,10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확보 : 1,952.7㎡ – (‘03.4.3 서구청취득) – 건축 : 2,731.77㎡ • 자료확보 • 운영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등록, 등기 • 공연장 안전진단 • 공연장 등록 • 향토사료박물관 유물전시 • 시운전, 잔손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냉난방등 각종설비 • 사무집기 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불편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측면, 이용자 측면 – 이용자 애로(불편)사항 청취 – 이용주민 만족도 조사 ⇒ 불만족요인 제거

| 추진 주체별 권한과 책임 |



특히 ‘대전서구문화원진립추진단’을 구성해 주1회 정기 및 수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부족한 계획을 수정해나갔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설계 공모에 관한 사항 △내부 용도 배치 계획 △설계 용역 진행 사항 △이용 주민 편의 제공 및 개인 사생활 보호 △공사장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설치 등 다양했다. 계획의 커다란 수정만이 아니고 ‘옥상 데크 설치로 휴게공간 확보’나 ‘화장실 위치 변경’ ‘마감재 변경’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논의가 이루어졌고 의견이 반영됐다.

지역민의 이용률이 높아

특히 대전 서구문화원 주변은 각종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세미나실 대관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면적 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한 효율적 세미나실도 운영하고 있다.

대전 서구문화원은 이처럼 다양한 문화 보급뿐 아니라 전통문화를 발전 계승시키는 데도 큰 지향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문화원이란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목표도 가지고 있는 바, 지역 문화원의 근본적인 존립 이유는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을 토대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 계승하여 지역민이 애향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는 셈이다. 특히 대전 서구는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대도시화된 지역으로서 대전에서 가장 발전된 자치구인 만큼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었다. 따라서 대전 서구문화원에서는 향토 자료실과 향토문화 전시관 등을 통해 이러한 역할도 충분히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갑천춘사새신’이라는, 대전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농촌 민속문화 행사를 매년 개최하며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원을 운영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인근에 건립함에 따라 접근성도 확보했다.

| 2011년도 공연장 대관 현황(2011년 8월 말 현재) |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9	17	15	8	4	19	12	27	5	14	28	9	21



서구만의 아주 특별한 예술 육성 정책



원로 예술인들의 그림 전시회

대전서구문화원은 지역문화원이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걸맞는 운용 또한 필수라고 강조한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구문화원 1층에는 77평 규모의 전시장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와서 관람하는 수준에 그쳤다. 서구는 한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예술계에서, 특히 이 지역의 가난한 작가들을 도와주면서 지역민들이 그림을 감상하는 동시에 한점씩 보유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서구문화원 관계자들은 문화 예술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자정 넘어서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원로 작가들의 협조를 얻어 그들의 그림을 저렴하게 팔아 각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그림을 살 수 있는 시스템, 그리하여 그것을 집안에 걸 수 있는 이른바 "한 집 한 그림 걸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원로 작가들이 그림을 저렴하게 내놓기 시작하자 다른 작가들의 참여가 확대됐다. 구가 나서서 작가와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서구문화원이 활성화되고 지역 문화예술계도 활기를 찾는 좋은 계기가 된 셈이다.

최상의 구민 서비스 위해 지금도 연구중

서구문화원이 지역민의 훌륭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자 포천문화원, 울산 광역시 5개 문화원, 울주문화원, 동해문화원, 고창문화원, 대구 달서문화원, 부여문화원, 이천문화원, 부산 연제문화원 등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했다. 이 중 부산 연제문화원은 서구문화원과 같은 방식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지역 문화원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정도로 사업 성과를 검증받았지만 서구는 지금도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문화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문화원 내 운영 사무실이 유독 작은 이유도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문화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문화강좌 강사, 지역민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전 서구문화원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문화 발전에 대한 현안 사업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전국 문화원의 우수 사례 및 문화원 운영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 전국 문화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계속 발전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대전 서구문화원의 발전은 현재도 진행형인 것이다.